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2020.9. 8.(화) 10:30부터

배포

2020.9. 8.(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이진수(02-2100-1660)	담 당 자	나혜영 사무관 (02-2100-1661)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신장수(02-2100-1670)		윤세열 사무관 (02-2100-1671) 홍재선 사무관 (02-2100-167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동훈(02-2100-2830)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석란(02-2100-2850)		김준수 사무관 (02-2100-2855)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욱(02-2100-2860)		안남기 사무관 (02-2100-2861)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민우(02-2100-2950)		이종림 사무관(02-2100-2951)

제 목 :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8.(화) 10:3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협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조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일주일 연장에 따라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금융 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점점·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며
 - 아울러 수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하였으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대상 적용
 -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보완·확정하며, 산은·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정책형 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하여 펀드조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1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 9.4일까지 197.7만건, 19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7.3만건)-소매업(32.4만건)-도매업(23.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2.5조원)-도매업(25.2조원)-소매업(1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3.4만건, 85.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4.3만건, 108.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3.3만건/99.2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1.8만건/9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해외감염병 NOW
--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9.4)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구분	목표금액	지원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6.4조	14.1조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21.2조	16.3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 코로나 피해 P-CBO(4.1일~)	5.0조 6.1조 20.0조 11.7조	6.9조 2.1조 1.1조 1.9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634건 (610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4,630건 (1,751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37.3만건 12조원	32.4만건 14조원	23.5만건 25.2조원	11.7만건 32.5조원	10.1만건 7.2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7만건 3.8조원	5.3만건 13조원	2.6만건 4.5조원	2.1만건 10.8조원	65.8만건 71.1조원

구 분 ¹⁾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 출	44.5만	32조	62만	37.1조	518건	527억	106.5만	69.2조
보 증	4.9만	26.6조	19.8만	56.8조	2.6만	0.9조	27.3만	84.4조
신 규	36.9만	16.3조	-	-	-	-	36.9만	16.3조
만 기 연 장	27만	24.2조	-	-	-	-	27만	24.2조
합 계 ²⁾	113.3만	99.2조	81.8만	94조	2.6만	1조	197.7만	194.1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